

## “모두를 위해” 광주·전남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취소

지역 내 20여개 행사 코로나19 여파 차단·폐쇄키로

“주민 안전 위해 연말연시 이동 자제해 줄 것 당부”

겨울 추위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관광명소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당초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20여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취소했다.

광주는 새해 첫날 5·18 민주광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송신년 행사를 비롯해 동구 너릿재 정상 해맞이, 남구 금당산 정상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또 동구 너릿재 정상과 서구 금당산 인공폭포광장, 남구 금당산 조입, 북구 무등산 원효분소와 매곡산·군왕봉·한세봉·삼각산, 광산구

어등산 등산로 입구에서 열 예정이던 떡국나눔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전남에서는 13개 시·군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모두 백지화됐다. 출입 통제와 방역요원 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고 해맞이 명소 가운데 한 곳인 여수 향일암 일출제를 비롯, 순천 와은 해넘이 행사, 나주 정수루 북두드림 제야행사, 고흥 남열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또 보성 울포해변 불꽃축제와 화순 만연산 해맞이, 무안 도리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진

도 타워 해맞이 행사, 신안 천사대교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이번엔 열리지 않는다.

특히, 안도군은 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해맞이 명소인 안도타워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시설 자체를 전면 폐쇄키로 했다.

해남군도 해마다 1만 명이 몰린 땅끝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비롯해 두륜산 오소재, 오시아노 관광단지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주요 명소에 대한 집중 방역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매킨무대 등 해돋이 명소를 폐쇄하고 출입 금지 안내문 등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영암호 해돋이 행사도 취소됐고, 금정면 활

성산은 공식 행사는 없는 대신 개인적으로 해맞이를 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아예 폐쇄 현수막을 게재했다.

목포시도 새해맞이 타종식과 각종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 들지 않아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취소했다”며 “해넘이·해맞이 명소 방문을 계획 중인 주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말연시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운동장서 배부되는 2021대입 수능 성적표

23일 오전 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배부되고 있다.

## 광주시,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 500억원 '3無 용자'

광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도 담보능력이 없어 경영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3무(無) 특례보증' 방식으로 융자키로 했다.

이번 긴급자금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시행한 3무 특례융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정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보증  
기존 보증 상관없이 2000만원 용자  
시, 1년간 보증수수료·대출이자 부담**

는 점을 감안해 긴급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 원을 지원했다. 1년간 이자와 보증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155억 원에 이른다.

이용섭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제10차 민생안정 대책의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변정섭 광주신

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

용자 신청 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존 보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특례보증을 통해 시로부터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반기 대출금액을 포함,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없이 용자받을 수 있으며, 2년 일시상환, 5년 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1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감안,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고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도 없었다.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2월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를 이용하거나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본부

## 화순군, 내년부터 5·18유공자에 민주명예수당 지급한다

매월 6만원...민주화 희생·헌신 예우

화순군은 2021년 1월부터 화순 거주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명예로운 삶을 위해 5·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6만 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해 왔던 생계지원비(월 13만 원)를 개편, 내년부터는 민주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

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월 6만 원씩 지급하고, 5·18 민주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이하 '가구'에 월 7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13만 원의 생계지원비를 받았던 유공자는 생활지원금이 감액되지만,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돼 지원금의 총액에는 차이가 없

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지원비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예우 방식으로는 5·18민주유공자의 3분의 2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화순 거주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성탄절 휴무로 다음호 28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